

연중 제5주일

제1독서 : 이사6,1-2a,3-8

제2독서 : 1 고린 15,1-11

복 음 : 루가 5,1-11

순정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루가 5, 10).

강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배영근 신부 / 교구장 비서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나중에 기쁘게 응합니다. 선생님이 친구들 가운데서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자기와 늘 함께 있다고 믿어 힘든 일도 잘해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해 득실을 따져보아 쫓무니를 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예언자와 사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가를 듣습니다. 어부 시몬을 뽑으신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그에게 훈수(?)를 하십니다. 훈수대로 시몬이 다시 그물을 치라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자 엄청난게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에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사람들을 낚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동업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성사로 말미암아 이미 모두가 불리움을 받았습니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먼저 죄악에 묻혀 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자격을 고백합니다. 기록하신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분과의 절대적인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사명은 겸손을 전제로 하며, 또한 순명을 요구합니다. 바오로의 경우에는 그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질세라 그의 육신에는 가시가 주어졌습니다(2 고린12,7). 그래서 그는 그가 해낸 많은 수고가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1 고린15, 10)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며 자기를 기준으로 형제들을 단죄(斷罪)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에게 어떠한 반응과 응답을 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핑계대거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여쭙어야 하겠습니다.

소리

“만나기만 하면 무엇하나”

지난해 12월 남북합의서 서명이 있는 뒤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통일교의 문 교주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왔고 최근에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평양에 가 경공업 분야의 합장공장 건립과 북한 내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건설·제조업 공동 진출 등 4개 협력사업에 합의하고 돌아왔다.

이들의 수행원과 김 주석이 함께 사이 좋게 찍은 사진들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문 교주는 김 주석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여 귀국 후 당국이 구속을 한다느니 엄포까지 놓았으나 그뒤 어찌된 영문인지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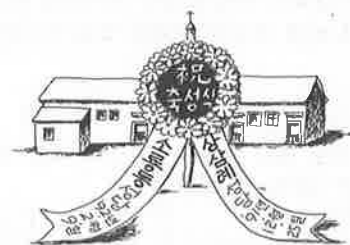
또 정부는 김 주석의 회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추진중이며 말쑥 많은 남북핵사찰문제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판국인데도 문규현 신부가 석방되리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아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호소와 건의, 여론 등을 외면한 채 문 신부를 석방치 않는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 신부의 방북이 구시대적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실정법을 무효화시킨 상태에서 문 신부 등 무고한 방북인사들을 석방치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묻고자 한다. [진]

순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



“살아 있는 교회”

- 상삼례 성당 -

우리 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설정되었던 1937년의 신자수는 19,579명, 본당은 15개였고, 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1987년의 신자수는 99,238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져 신자수는 대략 12만명이고('91년 말), 사제 숫자도 125명이나 되며, 본당도 금년('92년 2월)에 삼례 제2성당인 상삼례 성당과 군산 월명동과 나운동에서 소룡동 성당이 분리되어 59개나 된다.

외적인 교회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내적 성숙을 기대하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번에 새로 분리된 상삼례 본당을 소개한다.



전주와 이리의 중간에 위치한 삼례지역에 처음 교회가 들어선 것은 1936년 3월이었다. 이때는 물론 전주 성당에 소속된 공소(김양홍 주교가 세움)였다. 이렇게 시작된 삼례 공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51년 5월 정식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당시 본당신부였던 김영구 신부에 의해 '54년 현재의 성당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38년, 행정구역상 아직도 시골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삼례 신자들이라고 하면 웬지 열심하다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삼례 본당 신자들은 새성당을 마련해 놓고 새신부의 부임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상삼례 본당! 어떻게 이 성당이 이루어졌을까? 몇몇 신자들을 만나보니 초대 교회의 모습 그대로였다.

본당신부(김봉희)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본당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키워나갔고, 신자들은 일치와 화해, 감사와 사랑의 생활로 서로 나누며 뚝뚝 뚫렸다.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성당을 찾았고, 신자들 역시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 서 봉사했고, 전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당 총신자수는 3,000여명으로 늘어났고, 그중 약 1,000여명 정도의 신자들이 상삼례 새본당으로 분리되었다.

새성당이 분리되면 대개 모본당 신자들과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례 본당은 보내는 쪽도 떠나는 쪽도 서로

감사하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새성당에도 사목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완벽했고 (예-1개의 꾸리아 18개팀의 프레시디움), 모든 살림살이는 물론 새성당의 원활한 운영을 모본당에서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본당신부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상삼례 본당이 더 발전할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새본당은 새영세자(80%)들이 많아 모든 면에서 열성적이고 단합도 잘된다. 그도 그럴것이 새본당 초대 사목회장으로 임명된 최경구(안드레아) 형제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신자들의 종노릇을 하겠다며 자오가 대단하다.

비록 조립식이지만 2개월 만에 성전을 건립하고 지난 성탄 때 ('91년12월25일) 무사히 축성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기적이 아니겠느냐며 땅을 회사한 최병운 전 회장, 모든 걸 선두 지휘한 김음수 회장, 자원으로 총감독을 맡은 박봉군 형제, 그리고 신자들의 일치와 사랑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본당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었다.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종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성당 옆) ☎ 77-5997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민구(프란치스코)
 유해미(마리아)
 호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건, 관·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잡 관 /

사제의 소리

“아들 신부에게”

놀부성

처음 인사 이동을 하는 아들 신부에게 애비가 염려하면서 이 글을 쓰네.

신학교에 합격하였다는 전보는 애비의 일생에서 있을 수 없는 기쁨 중의 하나라네. 이번에 본당신부로부터 본당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감마마로부터 명을 받고 아들 신부가 어느 고을에 부임하는 기분이라네. 무척이나 기쁘면서 마음속 깊이 염려가 앞서네. 우리는 어디에 가거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보네.

첫째, 스위스의 등산가들은 지금과 같은 좋은 가스버너가 없었을 때 야영하고 떠날 시는 주변의 청소는 물론이러니와 다음에 오는 산악인이 밥을 해먹도록 빨감을 준비해 놓고 떠난다네. 대개의 경우 등산가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허기가 지기 때문에 즉시 밥을 해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이 새로 부임하는 신부님을 위하여 네 개의 양식과 반찬, 빨감을 양전히 준비하고, 손님이 오시면 대접할 수 있는 음료수, 차를 준비하여 놓는게 옳으리라 생각되네.

둘째, 새로 부임하시는 신부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방 도배, 새장판, 새단장을 하는게 우리의 기본 예의라네. 주교님께서 어느 날 부임하라는 그날 떠난다면 언제 장판과 도배지를 바르겠는가? 우리가 아니면 부임 2,3일 전에 떠나게.

셋째, 떠나 보내는 본당교우들, 특히 아들 신부에게 영세 받은 교우들이 가장 서운하겠지. 그렇다고 새로 부임하는 본당에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몰려가서는 안되겠네. 그들이 떠날 때 남의 본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추태는 부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넷째, 6개월 이내에 전임신부님께서 정해 놓으신 미사시간 등, 뭐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고치거나 무시지 말게. 그 본당 나름대로 경제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불편하게 이용을 하였으리라 생각하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깊이 관찰하면서 살게.

교 구 소 식

1. 교구 법원 : 2월10일(월) 오전10시 교구청.
2.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M. B. W.)-복음화 과정 : 2월25일(화)-27일(목) 천호 피정의 집, 대상-사제·수도자·평신도, 회비-40,000원, 접수-사무국(24일까지), 출발-25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3. 사진동우회 촬영모임 : 2월16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4.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2월10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5. 제38차 M.E. 주말 : 2월14일-16일 천호 피정의 집.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2월16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 살레시오수녀회 : 2월16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내 평화신문사(062)227-1017.
- 착한목자수녀회(피정) : 2월16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02)463-805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무연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유연휘발유의 배기가스는 인체의 간장, 콩팥, 뇌조직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차량에는 항상 무연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요심이 (966) 김병오



보혈선교수녀원 성소피정
 일시 : 1992년2월29일17시부터
 1992년3월 1일15시까지
 주제 : 그와의 만남이
 연락처 : 상삼리 수녀원
 (0431)60-1638(9)
 청주산남종합사회복지관
 (0431)271-1428

직원 채용
 1. 모집인원 : 주방, 세탁, 안내실, 관리인 각 〇명
 2.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3. 연락처 : 진주 성프란치스코의 집 ☎ (0591)52-2274
 4. 면접 : 92년 2월 2일 이후

약국직원 구함
 남자 30세 이상(경험자 우대)
 연락처 ☎ (0652) 84-4666
 254-7112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전자제품판매 및 수리
 전기재료·조명등 일절
성심 종합 전자
 이갑춘(안토니오)
 전현자(올 리 아)
 신동아파트 정문 앞
 ☎ (0653)52-3800

신부부케, 꽃꽂이 전문
백제 꽃 시장
 제일 예식장 건너편
 서은석(필립보)
 양소은(데레사)
 ☎ 78-200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꾸리아: 오늘 후2시.
2. 장우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11일 어머니미사 후.
4. 부녀회 월례회: 12일 어머니미사 후.
5. 병자 봉성체: 14일(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6. 재속형제회: 15일 후2시.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 예비자 교리: 직장인-매주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일반인-매주일 오전9시(수녀님).

1. 성시간: 13일 밤11시-새벽4시.
 2. 빈첸시오 임원개편: 회장-안가타리나, 부회장-강마리아, 서기-이마리아, 회계-조세노비아 구입원계 감사드립니다.
 4. 회합: ①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 꾸리아(오늘 오후2시) ③ 청년회(저녁미사 후) ④ 안나회(13일 오전10시) ⑤ 성우회(16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황만금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신대섭씨 가족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김용식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목

1. 설가정,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장년회: 15일(토) 저녁미사 후.
3. 청소년사: 천사들의 모후Pr.
4.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양대환 ② 오귀남
봉헌-강분옥, 황옥섭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김봉길 ② 이석남
봉헌-서병철, 김단오 씨 부부
5. 신부님 환송식: 9일 공식미사 후.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 제5주일.

1. 회의: ① 프란치스코3회-2월9일(오늘) 오후2시 ② 자모회-2월12일(수) 오전10시30분 ③ 사목회-2월12일(수) 저녁미사 후 ④ 성심회-2월13일(목) 오후2시 ⑤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다음주 목요일(2월20일) 오후8시.
3. 알림: ① 봉성체-2월19일(수) ② 혼인운 앞둔 남·녀 신자들은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를 반드시 이수하시고 혼배성사를 받게 바랍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자모회: 14일(금) 어머니미사 후(초·중·고학생).
2. 중·고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청년레지오단원 모집: 첫모임-2월13일 오후8시.
4. 공동체 수련회: 현대복음화과정-2월25일~27일 신청바람.
5. 예비자집교 권유바람: 새교리반 시작(3월1일) 일요일반 오전9시, 목요일반-오후7시30분, 금요일반-오전11시.
6. 청소년사구역: 신촌·갈매구역 1·2반.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성전보수현금 바람: 92년 교무금신입-주일금 배가운동.
2. 금주모임: ① 자모회(오전10시) ② 사목회(공식미사 후) ③ 일치의 모후Cu(오후2시) ④ 구역봉사자모임(오후7시).
3. 반기도회: 11일~14일, 구역반별로 실시.
4. 반미사: 11일(화) 전통 2반, 12일(수) 풍납동 1반, 13일(목) 남노송동 1반, 14일(금) 풍교동 1반.
5. 돈·보스교회: 12일(수) 저녁7시.
6. 성체강복 및 조배: 13일(목) 오전10시.
7. 바비의 성모 꾸리아: 다음주 오후2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원 규

1. 경로잔치: 16일 후12시. 만수무강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구역반회장 연수: 11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3. 반기도회 순회: 17일~21일 반별로 기도회시간 보고바람.
4. 성전건축현금 수입요망: 미신입자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M. E 제39차 부부주말 강습회: 14일~16일 천호에서 류덕진부부, 송영은부부, 이종식부부, 이우창부부 축하합니다.
6. 초·중·고 교사학교: 7일~14일 샌타.
7. 청년회 등반대회: 16일 전9시(등반후 월례회) 많은 참석바람.
8. 설가대 임원개편: 회장-곽병실, 부회장-김종자, 서기-이성자, 총무-김영애. * 구입원계 감사드리며, 신입원 수고 바랍니다.
9. 회의: 자모회-12일 어머니미사 후, 원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오늘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8시.
3. 대건회: 10일(월) 오후8시(장소-성당).
4. 울뜨레아: 11일(화) 오후8시.
5. 반모임: 11일(화) 화산2(B)-오전, 평화-오후, 산정2-저녁 12일(수) 금하-오전, 화산2(A)-오후.
6.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7.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이완자·김길호
차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이순애·이근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이 동 섭

- ※ 본당을 떠나시는 두분 신부님께 진심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시다. 가시는 분과 오시는 분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모임: ① 울뜨레아-오늘 12시 ② 클라라회-수요일 10시.
 2. 성전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전정화사업비 신임을 속히 하여주시요).
 3. 신년도 교무금을 세대별로 빠짐없이 신입합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의 도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빈첸시오, 제대회: 10일(월) 9시미사 후.
 3. 성모·자모회·성심회: 14일(금) 어머니미사 후.
 4. 공소미사: 14일(금) 오후2시 독배 저녁미사.
- 금주 전례: 해설-점이용 독서① 김항렬 ② 임양원
기도① 이해문 ② 유영숙
차주 전례: 해설-김낙환 독서① 임희준 ② 조정옥
기도① 김영길 ② 오순자